



# 고려 공민왕대 발급 鄭光道敎書의 재검토

— 판바자 駙馬高麗國王印의 압인 사례 —

카와니시 유야(川西 裕也)

- I. 머리말
- II. 두 종의 정광도교서
- III. 정광도교서의 문서 내용과 양식
- IV. 정광도교서의 전래
- V. 맺음말

##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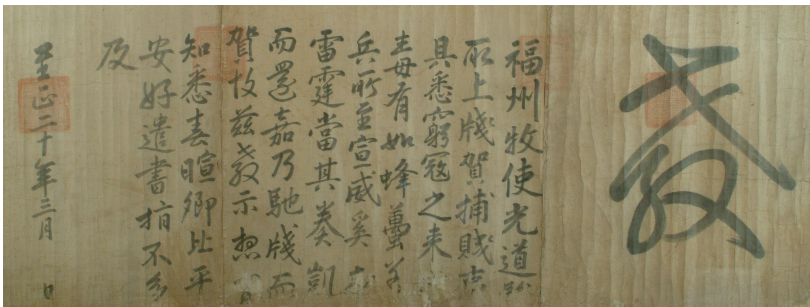
고려시대 고문서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sup>1)</sup>, 한편으로 고문서의 양식이나 기능 등에 관한 체계적인 해명을 비롯한 과제들이 적지 않게 남겨져 있다. 고려시대 고문서 연구자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현존하는 고문서 수가 너무나 적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학계에 소개된 고문서 수는 寫本이나 사진만 남아 있는 것을 포함해도 100점에 못 미친다. 이러한 사료 상황은 연구의 진전에 커다란 걸림돌이다. 그렇다고 가까운 장래에 고문서가 대량으로 발견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앞으로 고려시대 고문서 연구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고문서 한 점 한 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으리라

1) 2000년대 이후에 간행된 학술서에 한정하여 고려시대 고문서에 관한 연구 성과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노명호 외 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 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b; 박재우, 『고려 국정운영의 체계와 왕권』, 서울, 신구문화사, 2005; 강은경, 『고려시대 기록과 국가운영』, 서울, 해안, 2007; 矢木毅, 『高麗官僚制度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8; 심영환, 『고려시대 중서문하 교첩』, 서울, 소와당, 2010; 심영환·박성호·노인환, 『변화와 정착-麗末鮮初의 朝謝文書-』, 서울, 민속원, 2011; 川西裕也, 『朝鮮中近世の公文書と國家-變革期の任命文書をめぐって-』, 福岡, 九州大學出版會, 2014; 박성호, 『고려말 조선초 왕명문서 연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7.

생각된다. 비록 문서의 실물이 남아 있더라도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서의 眞僞 여부라는 기초적인 사실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고려시대 고문서에 대한 검토 작업의 일환으로서 공민왕 9년(1360)에 국왕이 福州(현 안동) 牧使인 鄭光道에게 내린 敎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그 진위와 전래를 둘러싼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 교서는 한반도에 침입해 온 紅巾軍<sup>2)</sup>을 고려군이 물리친 것을 慶賀하는 글을 올린 정광도를 褒獎한 것이며,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북문동의 태사묘에 소장되어 있다(<사진 1>). 정광도교서는 현존하는 유일한 고려시대의 교서로서 사료적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이 정광도교서는 현전하는 문서 이외에 또 하나의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 정광도교서는 1915년과 1933년에 촬영된 적이 있어 이 사진들에 보이는 문서와 현존하는 문서를 비교해 보면 인장이나 字體 등 여러 면에서 양자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존하는 문서에는 여러 의심스러운 점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 진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정광도교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사진 1> 태사묘 소장 정광도교서<sup>3)</sup>



2) 이 집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紅巾賊’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들은 “한적에 의한 새로운 제국의 성립을 표방하고, 황제를 칭하였으며, 새 시대의 도래를 자임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紅巾軍’이라고 호칭하기로 하였다. 윤용혁, 『공민왕대 ‘홍건군’의 고려 침입-고려의 홍건군 격파에 대한 재평가와 재인식-』, 『역사와 역사교육』 36, 2018, 6쪽.

3) 이 사진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심영환 책임연구원에게서 제공받았다.

## II. 두 종의 정광도교서

정광도교서를 소장하고 있는 태사묘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sup>4)</sup>. 태사묘는 고려 태조를 따라 활약한 三功臣(權幸·金宣平·張貞弼)을 기리기 위해 창건되었다. 고려시대에 삼공신은 안동의 府司 안에서 제향을 받았는데, 조선시대에 들어 중종 37년(1542)에 廟宇가 처음으로 건립되었다. 광해군 5년(1613)에 묘우가 新建되어 ‘太師廟’라는 廟號가 지어졌다. 숙종 34년(1708)에는 태사묘가 重修되었다. 경종 원년(1721)에 안동에서 큰불이 나 묘우를 제외한 태사묘의 모든 건물이 불탔지만 순차 재건되었다. 한국전쟁 때에 태사묘는 全燒되었으나, 1958년에 이전대로 복원되었다.

1967년에 정광도교서는 태사묘가 소장하고 있는 각종 유물(朱紅木盃, 古絹布, 幘頭, 黑皮靴, 布扇, 銅印, 銀食器, 玉貫子, 革銜帶, 銀수저)과 함께 보물 451호로 지정되었다<sup>5)</sup>. 이하에서는 태사묘에 소장되어 있는 정광도교서를 ‘현존교서’라고 부르기로 한다.

‘현존교서’의 크기는 세로 61cm, 가로 174cm이다<sup>6)</sup>. 문서 본문에는 약 10cm 四方의 인장이 찍혀 있으며(<사진 2>), 그 印文은 한자 4자로 추정되는데, 어떤 글자인지는 판독할 수 없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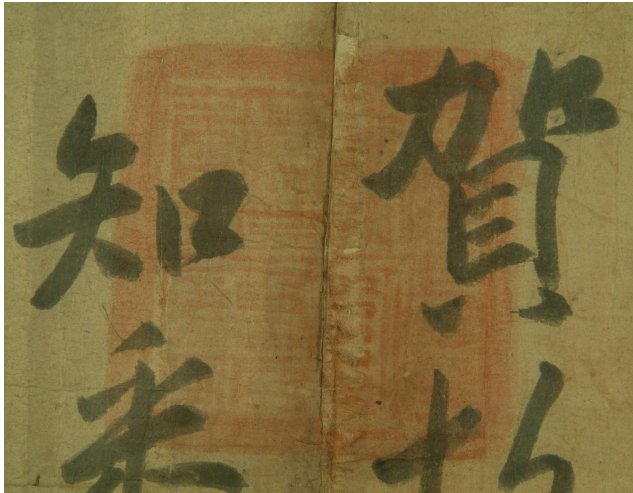
4) 『太師權公實紀』(1909년 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古2511-07-33), 권3, 太師廟事實紀年; 동 廟庭碑文; 동 太師廟重建記事; 동 崇報堂重新記; 경상북도 편, 『文化財大觀』 4, 대구, 경상북도, 2003, 16쪽.

5) 朱紅木盃 등 태사묘 소장 유물에 대해서는 이하 논저가 조사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정광도교서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다. 원희정·장현주·백영미·최석철·권영숙, 『안동 태사묘소장 고려후기 직물의 제작특성』, 한국전통복식연구회 편, 『전통복식』 2, 서울, 경춘사, 2000; 이은주·조효숙, 『태사묘 소장 유물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 안동,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2001; 이은주, 『태사묘 유물을 통해 보는 고려시대의 허리띠』, 안동시·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편, 『고려시대의 안동』, 서울, 예문서원, 2006; 이은주, 『우리가 알아야 할 태사묘 보물 이야기』, 안동민속박물관 학예연구팀 편, 『안동 태사묘』, 안동, 안동민속박물관, 2017.

6) 한상준·장동익, 『安東地方에 전래된 高麗 古文書 七例 檢討』, 『경북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과학)』 33, 1982, 62쪽.

7) 박성호, 『고려말 조선초의 교서』, 『고려말 조선초 왕명문서 연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7, 39쪽.

## &lt;사진 2&gt; ‘현존교서’의 압인 부분



‘현존교서’는 1982년에 학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이후<sup>8)</sup>, 그 사진과 釋文이 여러 자료집에 게재되었다<sup>9)</sup>. ‘현존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려시대 교서로 역사학이나 고문서학 분야에서 그 존재가 중요시되며 여러 논문에서 거론되어 왔다<sup>10)</sup>.

문제는 ‘현존교서’ 이외에 또 하나의 정광도교서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 건판’<sup>11)</sup>,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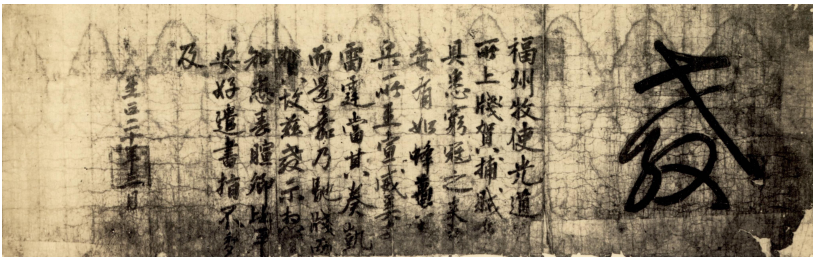
8) 한상준·장동익, 앞의 글, 1982, 61-62쪽.

9) 한국문화재보호협회 편, 『文化財大觀』 7, 서울, 대학당, 1986, 66-67쪽; 허홍식, 『한국의 古文書』, 서울, 민음사, 1988, 289-290쪽; 이기백 편, 『第二版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서울, 일지사, 1993(1987년 초판), 218-219쪽; 노명호 외 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 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a, 35-36쪽.

10) 矢木毅, 『高麗王言考-または『高麗史』諸志の文獻批判-』, 『高麗官僚制度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8(1994년 초출), 499쪽; 최연식, 『고려시대 국왕문서의 종류와 기능』, 『국사관논총』 87, 1999, 169쪽; 박재우, 『王命의 종류와 반포』, 『고려 국정운영의 체계와 왕권』, 서울, 신구문화사, 2005(2003년 초출), 66쪽; 심영환, 『高麗時代 契諭教書 樣式』, 『장서각』 18, 2007, 179-182쪽; 심영환·노인환, 『조선시대 敎書의 淵源과 分類』, 『한문학논집』 34, 2012, 24-26쪽; 川西裕也, 『高麗의 國家體制と公文書』, 『史苑』 75-2, 2015, 245-246쪽; 박성호, 앞의 글, 2017, 38-40쪽.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사진유리필름자료<sup>12)</sup>에 정광도교서의 유리 건판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각각 1915년과 1933년에 촬영된 것이다. 그중 1933년에 촬영된 교서 사진이 <사진 3>이다<sup>13)</sup>.

### <사진 3> 1933년 촬영 정광도교서



‘현존교서’와 유리 건판 사진의 교서를 비교하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발급 연월인 “至正二十年 三月”의 위에 찍힌 인장의 위치가 다르다(<사진 4>·<사진 5>). 또 본문 각행의 冒頭 부분을 비교해 보면 높이와 字體가 각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사진 6>·<사진 7>). 이로부터 두 교서가 별개의 문서인 것은 명백하다. 이하에서는 유리 건판 사진에 찍힌 교서를 ‘건판교서’라 부르기로 한다.

11) [http://www.museum.go.kr/dryplate/searchplate\\_view.do?relicnum=004076](http://www.museum.go.kr/dryplate/searchplate_view.do?relicnum=004076) (검색일: 2019. 06. 01). 1915년 촬영. 정리 번호: 건판004076. 이 데이터베이스는 朝鮮總督府博物館 舊藏의 유리 건판 사진을 게재한 것이다.

12)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FileName.do?itemId=f1&images=f1\\_s1255](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FileName.do?itemId=f1&images=f1_s1255) (검색일: 2019. 06. 01). 1933년 1월 촬영. 정리 번호: GF 3590. 이 데이터베이스는 朝鮮史編修會 舊藏의 유리 건판 및 사진 자료를 게재한 것이다.

13) 1915년에 촬영된 문서도 <사진 3>과 동일한 것이다. 전자는 선명도가 너무 낮아서 인장 등을 자세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진 3>만을 게시하였다. 두 사진은 조선총독부에 의한 사료 수집의 일환으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촬영자나 촬영 목적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사진 3>과 같은 사진은 『朝鮮史』第3編 第6卷(京城, 朝鮮總督府, 1935)의 圖板 4에 “恭愍王敎書(至正二十年三月附)”라는 명칭으로 게재되어 있다. 사진 캡션에는 “慶尙北道安東郡安東邑 大[太]師廟所藏”이라고 쓰여 있다. 또 다음 책에도 같은 사진이 실려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사진·유리필름목록』 상,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8; 강영철·이근택·박남수 편, 『사진·유리필름화집』,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1, 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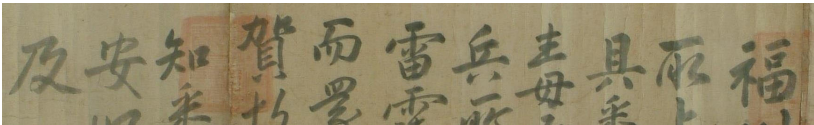
<사진 4> ‘현존교서’ 연월  
부분



<사진 5> 유리 건판 사진의  
교서 연월 부분



<사진 6> ‘현존교서’ 行頭 부분



<사진 7> 유리 건판 사진의 교서 행두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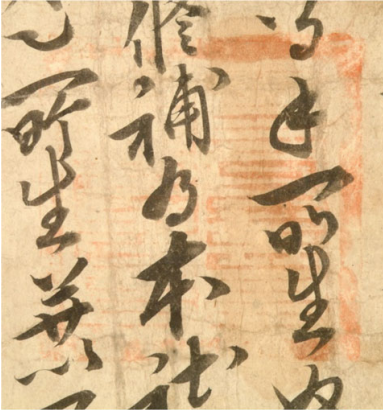
‘건판교서’의 인장을 보면 直線이 다용되고 있으며, 그 인문은 한자가 아니라 元代에 공용 문자로 쓰였던 팍바/파스파(phagspa) 문자 篆書體처럼 보인다. 당시 고려 국왕이 사용하였던 팍바자 인으로서는 駙馬高麗國王印을 들 수 있다. 이 인은 13세기 후반에 世祖 쿠빌라이(qubilai)가 자신의 駙馬가 된 忠烈王에게 下賜한 것이다<sup>14)</sup>.

부마고려국왕인이 찍힌 문서는 이제까지 두 건이 확인되어 있다. 하나는



충렬왕 7년(1281) 윤 8월에 乃老(慈眞圓悟國師)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노비를 修禪社(현 송광사)에 있는 丹本大藏寶(契丹大藏經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에 이속시켜 달라는 청원에 대해 국왕이 승인한 문서이다(<사진 8>)<sup>15)</sup>. 또 하나는 충목왕 즉위년(1344) 4월에 국왕이 申祐를 神虎衛 保勝 攝護軍으로 임명한 官敎(임명 왕지)이다(<사진 9>)<sup>16)</sup>.

<사진 8> 송광사 노비 문서 압인 부분      <사진 9> 신우관교 압인 부분



신우관교에 찍힌 印影을 토대로 복원한 부마고려국왕인의 印文과 判讀文은 <도 1>과 같다<sup>17)</sup>. <도 1>를 참고로 해서 ‘건관교서’의 압인 부분을 상세히 보면 꺾바자 전서체의 ‘馬’자와 ‘麗’자를 찾을 수 있다(<사진 10>·<사진 11>). 정광도교서의 발급 시기가 고려말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두

14) 森平雅彦, 『駙馬高麗國王の誕生-元における高麗王の地位についての豫備的考察-』, 『モンゴル覇權下の高麗-帝國秩序と王國の對應-』,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3(1998년 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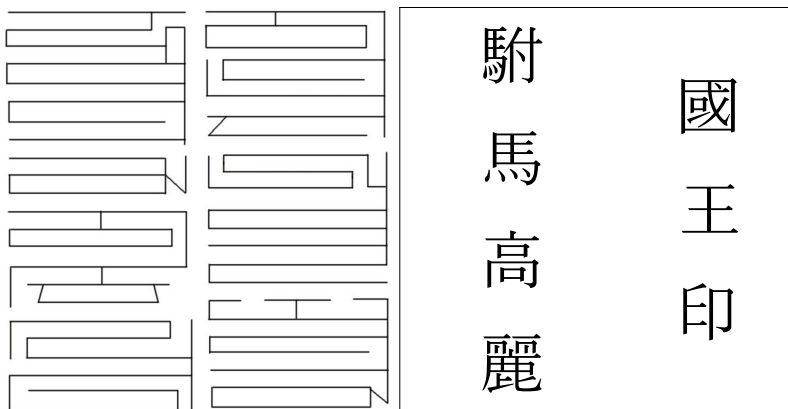
15) 川西裕也, 『高麗忠烈王代發給の‘松廣寺奴婢文書’-パスパ字‘駙馬高麗國王印’の新事例-』, 『朝鮮學報』 245, 2017.

16) 川西裕也, 『高麗事元期から朝鮮初期における任命文書體系の再檢討』, 『朝鮮中近世の公文書と國家變革期の任命文書をめぐって-』, 福岡, 九州大學出版會, 2014(2011년 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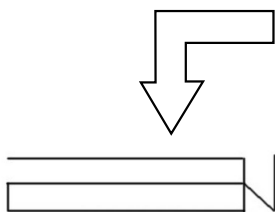
17) 인문 복원과 판독에 관한 고증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川西裕也, 앞의 글, 2014, 82-83쪽.

글자가 새겨진 꺾바자 인은 부마고려국왕인 이외에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건판교서’에는 꺾바자 부마고려국왕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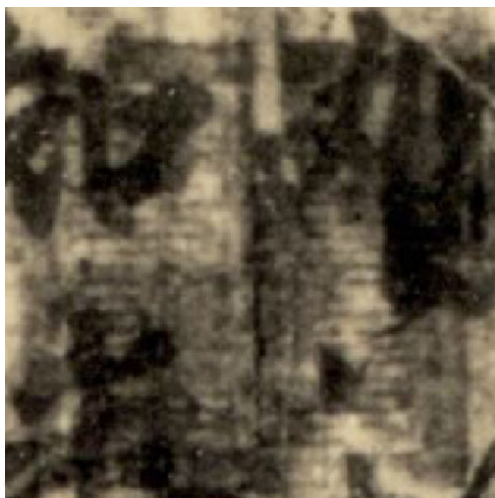
<도 1> 부마고려국왕인의 인문과 판독문



<사진 10> ‘건판교서’의 압인 부분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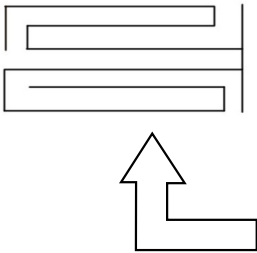
(전서체 꺾바자 ‘馬’)





&lt;사진 11&gt; ‘건판교서’의 압인 부분 ②

(전서체 팍바자 ‘麗’)



전서체 팍바자로 새겨진 부마고려국왕인이 조선시대 이후에 위조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sup>18)</sup>. 따라서 ‘건판교서’는 공민왕 9년(1360) 당시에 발급된 眞文書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건판교서’와 ‘현존교서’는 서로 어떠한 관계일까? 이 의문을 풀기에 앞서 정광도교서의 내용과 발행 경위, 문서 양식, 그리고 교서가 전래된 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Ⅲ. 정광도교서의 문서 내용과 양식

정광도교서의 釋文과 譯文을 들면 다음과 같다.

18) 조선전기에는 司譯院의 蒙學譯官에게 팍바자 학습이 부과되어 있었으나, 태조대에 이미 팍바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역관이 많았다고 한다. 이후 팍바자 학습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폐지되었다(정광, 『몽고어 교육-몽학-』, 『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 파주, 김영사, 2014, 283-327쪽). 이러한 상황에서 팍바자, 게다가 복잡한 전서체 팍바자 인이 위조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 【석문】 19)

- 01 教
- 02 福州牧使光道. □[覽]
- 03 所上牋, 賀捕賊事
- 04 具悉. 窮寇之來, □[肆]
- 05 毒有如蜂蠆. □[義]
- 06 兵所至宣威, 奚□[營]
- 07 雷霆. 當其奏凱
- 08 而還, 嘉乃馳牋而
- 09 賀. 故茲教示, 想□[宜]
- 10 知悉. 春暄, 卿比平
- 11 安好. 遣書指不多
- 12 及.
- 13 至正二十年三月 日

## 【역문】 20)

福州牧使 光道<sup>21)</sup>에게 教하노라. [정광도가] 牋을 올린 것을 보고서 捕賊을 경하한 뜻을 잘 알게 되었다. [홍건]적이 와서 별과 전갈처럼 毒을 뿌렸지만, 義兵이 이르는 곳마다 위세를 보임이 어찌 천등과 우뢰뿐이었겠는가. 이제 승리를 고하고 돌아오는 때에 네가 서둘러 牋을 올려 경하한 것을 가상히 여기는 바이다. 이에 教示하니 마땅히 알아라. 봄날이 따뜻하네 그대는 근래에 평안한가. 글을 보냄에 뜻이 다 이르지 못한다.

지정 20년(공민왕 9, 1360) 3월 일

정광도교서가 발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민왕 8년(1359) 12월 초순에 홍건군 약 4만이 압록강을 건너 義州·靜州·麟州를 공략하였고 12월 말에 西京(현 평양)을 함락시켰다(홍건군의 제1차 침입<sup>22)</sup>). 다음 해 정월에 고려군은 2만의 병사를 동원하며 홍건군이 주

19) ‘건관교서’를 토대로 석문을 작성하였다. 석문 중의 □는 판독할 수 없는 부분을 의미하는데, 後揭의 각종 地誌에 의거하여 글자를 보충하고 [ ]로 표기하였다.

20) 번역은 다음 책의 역문을 참고하였다. 노명호 외 편, 앞의 책, 2000a, 35-36쪽.

21) 문서 수급자의 성을 쓰지 않은 이유는 정광도의 관품이 낮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심영환, 앞의 글, 2007, 181쪽.

22) 홍건군의 침입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박진훈, 『고려후기 홍건적의 침입과 安祐의 군사활동』, 『사학연구』 130, 2018; 윤용

둔하던 서경을 공격하고 이를 수복하였다. 2월 중순에 고려군과 홍건군이 격돌하였는데, 李承慶·安祐·金得培 등의 활약으로 고려군이 대승을 거두었다. 승세를 탄 고려군은 홍건군을 추격하여 물리쳤다. 4월에 고려군은 開京(현 개성)에 凱旋하였다.

2월의 전투 직후, 안우 등이 전승을 알리며 이를 경하하는 牋을 공민왕에게 올렸는데, 이에 대해 국왕은 다음과 같은 批答을 내렸다.

窮寇之來，肆毒有如蜂蠆，義兵所至定威，奚啻雷霆，當其奏凱而還，嘉乃馳牋而賀<sup>23)</sup>.

이 비답의 문구는 정광도교서 본문의 문구(4-9행)와 거의 일치한다. 이로 부터 여러 관인들이 고려군의 전승을 경하하는 전을 올렸으며, 이에 대해 공민왕이 같은 문구를 적은 교서 여러 장을 발급하였으리라 추정된다<sup>24)</sup>. 정광도교서도 그중 하나였을 것이다.

교서의 발급 대상인 정광도에 대해서는 『東人之文四六』의 刊記를 통해 至正 15年(공민왕 4, 1355)에 按廉副使 通直郎(正五品) 版圖正郎이였음을 알 수 있다<sup>25)</sup>. 또 안동에 부임한 수령의 명단인 『安東先生案』(18세기 경 성립)에서 정광도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정광도는 지정 19년(공민왕 8, 1359)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福州牧使로 在任했다고 전한다<sup>26)</sup>. 교서 발급 당시(지정 20년 3월)에 정광도가 복주목사였음을 알 수 있다.

혁, 앞의 글, 2018; 이정란, 「1361년 홍건적의 침입과 공민왕의 충청지역 피난정치」, 『지방사와 지방문화』 21-1, 2018.

23) 『高麗史』(韓國學古典叢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3), 권113, 열전26, 安祐傳.

24) 심영환, 앞의 글, 2007, 181-182쪽.

25) 『東人之文四六』(高麗名賢集 5,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刊記. “至正十五年乙未八月日, 福州開板. ……按廉副使兼監倉安集勸農防禦使轉輸提點刑獄公事通直郎版圖正郎鄭光道.” 사료 중의 ……는 생략 부분이다(이하 같음). 조선전기의 용례로 유추하면 “兼監倉安集勸農防禦使轉輸提點刑獄公事”는 道の 지방관에게 부착되는 칭호라 생각된다. 장병인, 『朝鮮初期의 觀察使』, 『한국사론』 4, 1978.

26) 『安東先生案』(허홍식, 『安東先生案』, 『대구사학』 19, 1981). “牧使鄭光道(大中, 至正十九年己亥五月赴任, 庚子四月遞任.)” 허홍식에 의한 고증의 결과, “安東先生案은 신빙성이 큰 一次資料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허홍식, 앞의 글, 1981, 4쪽).

다음으로 정광도교서의 문서 양식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정광도교서에 쓰여 있는 “敎……故茲敎示, 想宜知悉. 春暄, 卿比平安好. 遣書指不多及”라는 문구는 唐이나 宋의 황제문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sup>27)</sup>. 당 황제가 公卿을 위유하며 신하를 誠約할 때 사용했던 論事勅書나 그 영향을 받아 성립된 송 황제의 詔書에는 “勅……故茲詔示, 想宜知悉. 春暄[時候], 卿比平安好. 遣書指不多及”라는 定型句가 쓰였다. 이 정형구가 고려에 도입되어 정광도교서의 본문에 사용된 것이다. 이처럼 정광도교서의 양식에서는 唐宋 황제문서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데, 정광도교서에서 ‘勅’자나 ‘詔’자가 ‘敎’자로 개변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고려가 元에게 책봉을 받았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어인 ‘勅’자나 ‘詔’자를 쓰지 못하고 諸侯의 명령어인 ‘敎’자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정광도교서에는 부마고려국왕인이 찍혀 있는 점이 주목된다. 충렬왕대에 세조 쿠빌라이가 부마고려국왕인을 하사한 이후, 고려에서 국왕인(국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인장)이 새로 주도되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충목왕대에 발급된 申祐官敎에도 부마고려국왕인이 찍혀 있다. 그러므로 충렬왕대 이후 元 간섭기에 걸쳐 부마고려국왕인이 국왕인으로서 계속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부마고려국왕인은 언제까지 사용되었을까? 공민왕 19년(1370) 5월에 明의 洪武帝가 공민왕을 책봉하였는데, 그때 한자로 새겨진 高麗國王之印을 하사하였다<sup>28)</sup>. 이것을 받은 공민왕은 같은 해 7월에 명에 謝恩使를 보내며 부마고려국왕인을 납부하였다<sup>29)</sup>. 그러므로 공민왕 19년 5월 이후 국왕이 발급하는 문서에는 부마고려국왕인이 아니라 고려국왕지인이 사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sup>30)</sup>. 책봉 주체가 元에서 明으로 바뀐 것에 대응하여 고려 국왕의 국왕인

27) 矢木毅, 앞의 글, 2008(1994년 초출); 최연식, 앞의 글, 1999; 박재우, 앞의 글, 2005(2003년 초출); 심영환, 앞의 글, 2007.

28) 『高麗史』(앞의 책, 1973), 권72, 지26, 輿服1, 印章. “恭愍王十九年五月, 太祖高皇帝, 賜金印一顆, 龜紐螭綬, 其文曰, 高麗國王之印.”

29) 『高麗史』(앞의 책, 1973), 권42, 세가42, 공민왕 19년 7월 18일(甲辰). “遣三司左使姜師贊如京師, 謝冊命及璽書, 并納前元所降金印, 仍計稟耽羅事. ……”

30) 고려국왕지인이 찍힌 고문서의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박성호, 「조선 초기 功臣敎書의 文書史的 의미 검토-1392년 李濟 開國功臣敎書와 1401년 馬天牧 佐

도 변화한 것이다.

#### IV. 정광도교서의 전래

본 장에서는 정광도교서가 어떻게 전래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안동에 관한 가장 오래된 地誌인 『永嘉誌』(1608년 序)에는 “恭愍王手筆敎旨”로서 정광도교서의 본문 전부가 인용되어 있다<sup>31)</sup>. 이 기사에는 정광도교서가 공민왕의 친필로 쓰였다고 전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몇 장이나 발급되는 교서를 국왕이 직접 썼다고는 상정하기 어렵고, 조선 초기에도 국왕이 교서를 쓴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 정광도교서가 공민왕의 친필이라는 기술은 17세기 이전의 안동에 퍼져 있었던 傳承에 불과할 것이다.

『영가지』의 기사에서는 정광도교서가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 언급이 없는데, 아래의 여러 사료 등을 통하여 그 소장 장소를 추측할 수 있다.

먼저 庚子年(현종 원, 1660)에 金壽興(1626-1690)이 적은 여행기를 살펴보자.

(3월) 초 7일 아침에 대사묘를 謁하였다. 廟는 客館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戶長이 “廟 중에 오래된 櫃 하나가 있는데 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감상합니다.”라고 하였다. 陳列시켜보니 白玉의 피리 한 개가 있었는데, 금으로 만든 띠가 있고 銀絲가 둘러져 있는 것이 마치 新品 같았다. 이를 불면 소리가 매우 잘 울려 퍼진다고 한다. 또 靑紅 각색의 비단이 대여섯 단, 荔枝金帶 하나, 荔枝銅帶 하나, 금을 아로새긴 띠 하나, 玉貫子 둘, 雙銀行器 하나, 銀수저 각 하나, 象笏 하나, 붉게 칠한 小大盤 각 하나, 붉게 칠한 나무와 표주박과 같은 나무로 만든 받침 각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命功臣敎書-, 『전북사학』 36, 2010; 박성호, 『새로 발견된 고려말 흥패의 고문서학적 고찰과 사료로서의 의의-1389년(창왕 1) 최광지 흥패-』, 『고문서연구』 48, 2016.

31) 『永嘉誌』(朝鮮時代私撰邑誌 18 慶尙道 3, 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89), 권6, 古跡. “恭愍王手筆敎旨(敎福州牧使光道曰, 覽所上牋, 賀捕賊事具悉. 窮寇之來, 肆毒有如蜂虿. 義兵所至宜威, 奚啻雷霆. 當其奏凱而還, 嘉乃馳賸而賀. 故茲敎示, 想宜知悉. 春暄, 卿比平安好. 遣書指不多及. 至正二十年三月日. 光道姓鄭.)”

福州牧使 張志에게 내린 교서<sup>32)</sup> 한 통이 있었는데, 모두 공민왕이 紅巾을 피해 이 읍에 주류하였다가 還都할 때 잠시 머무르며 本府의 호장에게 내린 것이라고 한다. 교서의 紙品이나 長短은 詩軸과 같다. 初面に 초서로 크게 ‘教’자가 쓰여 있었다. 그 해는 至正 25년이었다. 御寶는 뚜렷하지만 篆文은 지금 쓰여 있는 것과 크게 달라 알 수 없다<sup>33)</sup>.

김수흥이 태사묘를 찾았더니 호장이 태사묘에 보관되어 있는 여러 보물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중에는 “지정 25년(공민왕 14, 1365)”에 공민왕이 “福州牧使 張志”에게 내린 교서가 있었다. 이 교서에는 初면에 ‘教’자가 크게 쓰여 있으며 종이는 詩軸과 같고, 또 그에 찍힌 인장은 판독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교서는 홍건군을 피해 복주에 체류하였던 공민왕이 개경에 돌아갈 때 당시의 호장에게 하사한 것이라고 한다.

만일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17세기 중엽의 안동에는 정광도교서와 별도로 장지교서가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장지교서의 양식이나 형태의 특징 등으로 추측하면 김수흥이 접한 교서는 정광도교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위의 기사에는 장지교서의 발급 연도(지정 25, 1365)가 보이는데,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공민왕 10년(1361) 10월에 홍건군이 다시 고려를 침입하였을 때(홍건군의 제2차 침입<sup>34)</sup>) 국왕은 개경을 떠나 약 2개월 동안 복주에 체류하였다. 그 후 홍건군이 격퇴되었다는 보고를 듣자 공민왕은 다음 해 2월 복주를 출발하여 개경으로 향했다. 공민왕이 체류하였을

32) “張志處教書”의 處는 조선시대의 고문서나 일기 등에서 종종 쓰이는 ‘에게’를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張志에게 내린 교서”로 번역하였다. 處의 해석에 대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성호 조교수의 교시를 받았다.

33) 『退憂堂集』(韓國文集叢刊 127,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4), 권10, 雜著, 南征錄, 庚子 3월 초7일. “初七日, 朝謁太師廟. 廟在客館之北. ……戶長言, 廟中有古器一櫃, 謁廟諸人, 必看玩焉. 使之陳列, 則有白玉簪一條. 以金爲帶, 匝以銀絲, 宛然如新. 吹之聲甚響亮云. 又有青紅各色段五六端, 荔枝金帶一, 荔枝銅帶一, 釵金帶一, 玉貫子二, 雙銀行器一, 銀匙筋各一, 象笏一, 紅漆小大盤各一. 紅漆木·如瓢木卓具各一. 福州牧使張志處教書一度, 此皆恭愍王避紅巾駐此邑, 還都時, 留賜本府戶長之物云. 教書紙品長短, 有如詩軸之樣. 初面以草大書教字, 而其年乃至正二十五年也. 御寶宛然, 而篆文與今所用大異, 不可識也. ……”

34) 주 22 참조.



때 북주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모셨다고 하여 그 공적으로 공민왕 11년(1362) 4월에 북주목은 安東大都護府로 개칭되었다<sup>35)</sup>. 즉 1365년 시점에서 ‘북주목사’라는 관직명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安東先生案』에서 북주목사 장지라는 인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가 북주에 부임한 시기는 1317년부터 1318년까지이다<sup>36)</sup>. 이처럼 장지교서의 발급 연도와 북주목사의 관직명, 장지의 북주 부임 시기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장지교서의 實在 여부는 극히 의심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김수홍은 정광도교서의 발급 대상이나 발급 연도를 誤認하였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면 왜 이러한 오인이 발생하였을까? 김수홍은 “敎”자가 쓰인 정광도교서의 初面(압인 있음)만을 보았는데, 문서 본문이나 발급 연월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sup>37)</sup>. 아마도 호장에게서 이 교서가 지정 25년에 장지라는 사람에게 내려졌다는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대로 믿어버린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태사묘 소장 교서의 발급 대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혼란은 다음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金養根(1734-1799)이 쓴 기록에는 태사묘의 崇報堂에 소장되어 있었던 보물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張志敎書”가 보인다<sup>38)</sup>. 그러나 이 역시 김양근이 호장 등에게서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대로

35) 『高麗史節要』(東京,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1960), 권27, 공민왕 11년 4월. “陞福州牧爲安東大都護府, ……王之駐福也, 福人盡心供頓, 卒能徵兵諸道, 收復京都. ……”

36) 『安東先生案』(허홍식, 앞의 글, 1981), “牧使張志(中顯, 延祐四年丁巳赴任, 戊午三月遷任.)”

37) 김수홍이 정광도교서의 본문을 확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문서의 손상을 염려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후대의 기사이긴 하지만 다음 주 38에서 언급한 18세기의 기록에는 문서가 크게 손상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38) 『東槎集』(韓國文集叢刊 續94,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0), 권7, 記, 太師廟櫃藏古物記. “崇報堂有千年古蹟, 皆太師公平日服用之器也. 花紋白錦四段各二尺, 一段一尺, 紅錦一段九尺, 藍錦一段十八尺, 草綠綿二段合二十二尺, 已上竝破. 色金縐錦三段, 丹紅金縐一段, 花文青色縐一段, 已上竝裁剪. 香囊一部, 紅紬十尺, 青黃赤色白花紋十一尺三寸, 已上竝破. 荔芝金帶一軀, 荔芝錢一箇無, 銅鐵荔芝帶一軀, 牧丹金帶一軀, 舌皮端無, 烏犀帶一軀, 金鈎錢一隅無, 又荔芝金帶, 大錢二箇, 中錢十箇內二無, 小錢四箇, 環金二箇, 白玉帶, 大錢十箇, 小錢五箇, 所湯角大七小五, 環金五, 荔芝錢鐵一, 角帶錢中小合五十一箇內, 十二無, 已上竝散破. 玉貫子二雙內, 一折破, 一隅無, 朱紅漆木食卓臺具一座, 鏞行器蓋具一座, 鏞匙一枝, 鏞箸一對, 玉笛一捻, 張志敎書一張, 凡此斷爛數十種. 英宗癸丑, 爲新櫃藏之. 不忍忘其舊也. ……”

옳겨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태사묘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은 장지교서가 아니라 정광도교서일 것이다.

조선후기에 정광도교서가 어디에 소장되어 있었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金壽增(1624-1701)이 丙寅年(숙종 12, 1686)에 쓴 기행문에 따르면 태사묘에 “恭愍王敎福州府使書”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sup>39)</sup>. 또 成大中(1732-1809)이 쓴 안동의 映湖樓 懸板에 대한 後記에 의하면 태사묘에 “恭愍教旨”가 소장되어 있었다고 한다<sup>40)</sup>. 權埭 (1800-1873)의 壬辰年(순조 32, 1832) 일기에는 “天子”가 내린 “教旨”가 태사묘의 승보당에 있었다고 전한다<sup>41)</sup>. 申錫愚(1805-1865)가 丙辰年(철종 7, 1856)에 적은 기록에는 태사묘 講堂(승보당)에서 “至正年號”가 쓰인 “璽書”를 봤다고 한다<sup>42)</sup>. 權憲貞(1818-1876)가 辛酉年(철종 12, 1861)에 쓴 일기에는 손상된 “教旨 一丈”이 태사묘 승보당에 있었다고 적혀 있다<sup>43)</sup>.

위에 든 조선시대의 일기나 기록 등을 참조하면 태사묘에는 정광도교서 이외에도 여러 문서가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각의 사료는 태사묘에 소장된 문서를 하나씩 밖에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39) 『谷雲集』(韓國文集叢刊 125,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4), 권4, 記, 花山記, 丙寅 正月 26日. “……食後, 展謁始祖廟. 廟在府衙後. ……有司權泰時·戶長權姓人接待, 出示太師舊物金帶二圍及古器. 又有玉笛. 使笛童吹數曲, 其聲清亮可聽. 權門人謂是權太師物. 而既無文籍可據, 未可知也. 又有恭愍王敎福州府使書一紙, 手跡宛然. ……”

40) 『青城集』(韓國文集叢刊 248,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권8, 題跋, 題映湖樓額後. “……又有恭愍教旨一通, 藏于太師廟. 州之講武堂, 亦恭愍筆也.”

41) 『龍耳窩集』(韓國文集叢刊 續123,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1), 권7, 別集, 請狀碣文日記, 壬辰 3월 15日. “早朝, 與二齋席焚香, 謁三太師廟. 拱讀廟庭碑文. 退坐崇報堂, 奉審始祖太師公朝衣·金帶·象笏·銀食器·銀匙箸[箸]·玉笛. 又有教旨, 天子所賜也. 至今千有餘年, 遺藏尚存. 油然感慕之心, 奚特見羹見牆之比哉. ……”

42) 『海藏集』(韓國文集叢刊 續127,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1), 권11, 記, 三太師祠記. “祠在府治之北. ……肅謁而退坐於講堂, 閱斷古蹟. 荔枝金帶一圍, 玉圈二雙, 一缺其半. 玉笛一枚, 又有表裏·璽書. 院儒謂之麗祖所賜三太師者也. 及考璽書, 書至正年號. 院儒之說無稽. 其必三太師之後人, 又爲迎駕於恭愍南下之時. 有著忠勤如太師者, 受其賜矣. 命籟者捻一曲, 籟者曰, 朝寒籟凍, 不可成聲云.”

43) 『遜窩遺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古3648-07-179), 권3, 雜著, 花山記行, 辛酉 4월 9日. “……上崇報堂, 周觀堂制, 奉審古蹟. 金帶一, 荔枝帶三, 木罍一, 象牙笏一, 玉貫子二件, 一則飛鶴形, 一則松子樣, 而半缺. 玉笛一, 銀行器一, 銀匙箸各一, 教旨一丈, 而半缺. 賞賜錦二段, 皆入盛櫃子. 千年遺蹟, 宛如昨日. 油然有追慕曠感之懷也. ……”

이들 사료에 보이는 여러 문서는 실제로는 다 동일한 문서이리라 생각된다. 발급자나 발급 연대, 형태 등으로 추측하면, 그 문서는 정광도교서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정광도교서가 태사묘에 소장되어 있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침언하자면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新增安東府輿地誌』에는 “福州牧使鄭光道”에게 내린 “恭愍王手敎”의 본문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 문서가 府司에 소장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다<sup>44)</sup>. 그러나 위에 든 여러 사료를 통해서 정광도교서는 부사가 아니라 태사묘에 소장되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당시 태사묘는 안동부사 바로 뒤쪽에 자리하였기 때문에<sup>45)</sup> 『신증안동부여지지』가 위와 같이 기술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후에 간행된 각종 지지 중에도 정광도교서에 관한 기사가 보이는데, 『신증안동부여지지』의 해당 기사를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여 사료적 가치가 낮다<sup>46)</sup>.

조선후기 당시 태사묘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은 ‘현존교서’와 ‘건판교서’ 중 어느 쪽일까? 선행 연구에 의하면 경상북도의 한 집안에 조선시대 후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광도교서의 拓本 書帖이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사진 12>)<sup>47)</sup>. 이 탁본 서첩과 ‘건판교서’ 및 ‘현존교서’의 字體를 비교해 보면(<사진 13>·<사진 14>), 탁본 서첩과 ‘건판교서’의 자체가 일치하기 때문에 ‘건판교서’를 따라 탁본 서첩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sup>48)</sup>. 그러므로 조선후기 태사묘에 소장되어 있었던 정광도교서는 ‘건판교서’임이 분명하다.

44) 『新增安東府輿地誌』(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청구기호: 古4790-34), 古蹟. “恭愍王手敎(至正二十年三月日, 敎福州牧使鄭光道曰, 覽所上牋, 賀捕賊事具悉. 窮寇之來, 肆毒有如蜂蟻. 義兵所至宣威, 奚啻雷霆. 當其奏凱而還, 嘉乃馳牋而賀. 故茲敎示, 想宜知悉. 春暄, 卿比平安好, 遣書指不及多. 至今藏在府司.)”

45) 『新增安東府輿地誌』(앞의 책), 邑地圖.

46) 『輿地圖書』(韓國史料叢書 20,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3), 慶尙道, 安東鎮·安東大都護府, 古蹟; 『慶尙道邑誌』(韓國地理誌叢書 邑誌 1 慶尙道編 1,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2); 『嶺南邑誌』(韓國地理誌叢書 邑誌 3 慶尙道編 3,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2), 安東府, 古蹟; 『安東府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청구기호: 奎10832), 古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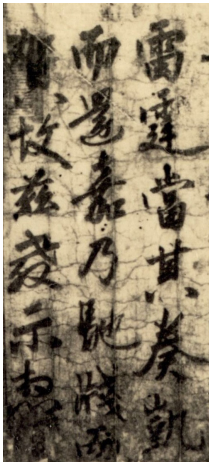
47) 배영동, 「공민왕 몽진 관련 유물 유적의 성격과 의미」,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편, 『고려 공민왕과 임시수도 안동』, 안동, 안동시, 2004, 122-123쪽.

48) 다음 책에는 배영동이 소개한 것과 다른 ‘건판교서’의 목판본이 게재되어 있다(소장처 미상).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411-412쪽, 53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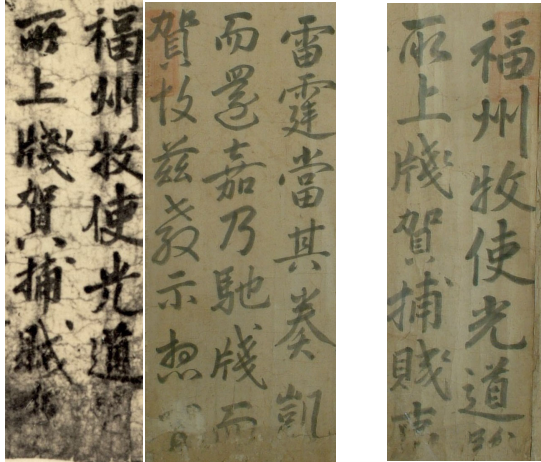
&lt;사진 12&gt; 탁본 서첩



&lt;사진 13&gt; ‘건판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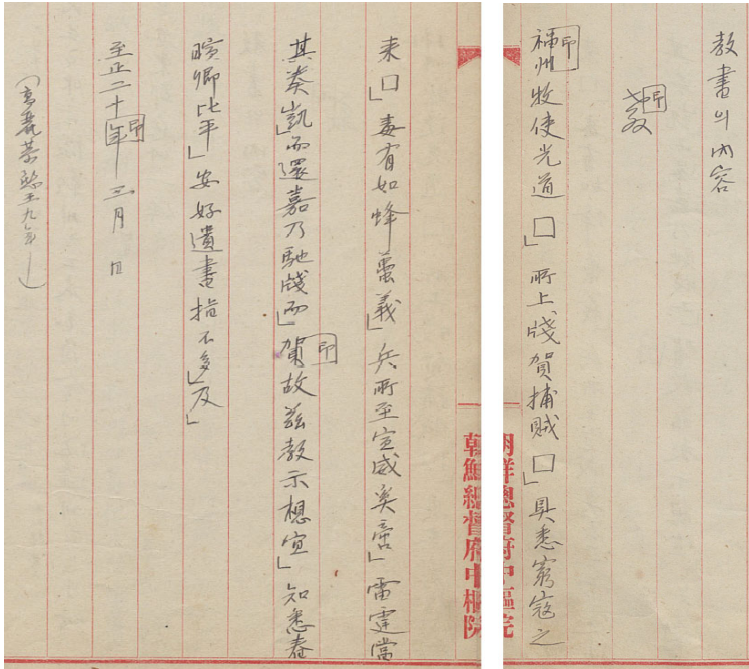
&lt;사진 14&gt; ‘현존교서’



정광도교서는 20세기 전반에도 태사묘에 소장되어 있었던 듯하다. 1924년에 朝鮮史編修會의 위원인 洪憲(1884-1935)가 태사묘에 소장되어 있었던 정광도교서를 조사하였다<sup>49)</sup>. 그가 적은 復命書에는 “敎書의 內容”으로 교서 본문이 베껴져 있다(<사진 15>).

49) 『慶尙北道史料採訪復命書』(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청구기호: B17B-9-V.6).

<사진 15> 洪憲의 復命書



복명서에는 압인 위치도 적혀 있는데, 발급 연월일 부분에 대한 압인 위치가 ‘年’자임으로 봐서 홍희가 조사한 문서 역시 ‘현존교서’가 아니라 ‘건판교서’임을 알 수 있다(<사진 4>·<사진 5>). 또 전술한 바와 같이 적어도 1935년까지 ‘건판교서’는 태사묘에 소장되어 있었다<sup>5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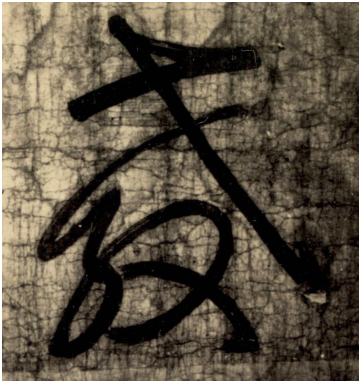
이상 17세기 중엽부터 1935년까지 ‘건판교서’가 태사묘에 소장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사이에 두 종의 정광도교서가 존재하였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당시 태사묘에 ‘현존교서’는 소장되어 있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지금 태사묘에 소장되어 있는 ‘현존교서’는 어떠한 문서일까? ‘현존교서’와 ‘건판교서’의 字體를 비교해 보면 ‘현존교서’의 문자는 명백히 筆勢가 약하고 다른 문자를 摹寫한 것처럼 보인다(<사진 16>·<사진 17>).

50) 주 13 참조.

또 書法도 ‘건판교서’가 고려말기에 유행하던 松雪體로 쓰여 있는 반면 ‘현존교서’는 대단히 졸렬하다<sup>51)</sup>. 그리고 ‘현존교서’의 인장이 연호에 찍혀 있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사진 4>). 元 간섭기부터 조선 태조대 중엽까지의 국왕문서에서 연호에 압인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sup>52)</sup> ‘현존교서’의 압인 위치는 당시 교서로서 매우 이례적이다. 이상의 예로 미루어 보면 ‘현존교서’는 後世의 누군가가 ‘건판교서’를 본떠 만든 模本으로 추측된다. ‘현존교서’가 언제 模作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보물로 지정된 1967년 이전임은 틀림없다<sup>53)</sup>. 한편 ‘건판교서’가 아직도 현존하는지, 현존한다면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

<사진 16> ‘건판 교서’의 ‘教’자



<사진 17> ‘현존 교서’의 ‘教’자



51) 배영동은 ‘현존교서’에 대해 “행서와 초서를 섞어서 쓰고 있는데 잘 쓴 글씨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탁본 서첩, 즉 ‘건판교서’에 대해서는 “송 설체로서 독특하고 세련된 필법으로 매우 잘 쓴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배영동, 앞의 글, 2004, 123쪽.

52) 元 간섭기부터 태조대 중엽까지의 국왕문서에서의 압인 위치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상세히 분석할 예정이다.

53) 다음 책에 ‘현존교서’의 사진 일부가 게재되어 있다.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편, 『第2次3個年計劃 安東文化圈學術調查報告書』, 서울, 안동문화권학술조사단, 1971.



## V. 맺음말

지금까지 공민왕대에 발급된 정광도교서에 대하여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광도교서는 1360년에 공민왕이 복주목사인 정광도에게 내린 교서이다. 정광도교서에 대해서는 현재 태사묘에 소장되어 있는 ‘현존교서’와 별도로 1915년과 1933년에 촬영된 ‘건판교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건판교서’에 찍힌 인장은 팍바자 부마고려국왕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건판교서’가 공민왕대에 발급된 眞文書인 것은 확실하다.

정광도교서는 적어도 17세기 중엽부터 1935년까지 계속해서 태사묘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장되어 있었던 정광도교서는 ‘현존교서’가 아니라 ‘건판교서’였다. 약한 필세나 졸렬한 서법, 이례적인 압인의 위치 등으로 미루어 ‘현존교서’는 후세에 만들어진 模本이라 생각된다.

종래의 고문서 연구에서는 고려시대나 조선초기의 고문서의 실물이 남아 있으면 무조건 진문서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시기의 고문서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물 문서를 조사하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경향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밝혔듯이 실물 문서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진문서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앞으로 고문서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문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慶尙道邑誌』, 韓國地理誌叢書 邑誌 1 慶尙道編 1,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2.
- 『慶尙北道史料探訪復命書』,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청구기호: B17B-9-V.6.
- 『高麗史』, 韓國學古典叢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3.
- 『高麗史節要』, 東京,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1960.
- 『谷雲集』, 韓國文集叢刊 125,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4.
- 『東坐集』, 韓國文集叢刊 續94,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0.
- 『東人之文四六』, 高麗名賢集 5,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 『遜窩遺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古3648-07-179.
- 『新增安東府輿地誌』,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청구기호: 古4790-34.
- 『安東府邑誌』,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청구기호: 奎10832.
- 『輿地圖書』, 韓國史料叢書 20,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3.
- 『永嘉誌』, 朝鮮時代私撰邑誌 18 慶尙道 3, 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89.
- 『嶺南邑誌』, 韓國地理誌叢書 邑誌 3 慶尙道編 3,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2.
- 『龍耳窩集』, 韓國文集叢刊 續123,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1.
- 『朝鮮史』 第3編 第6卷, 京城, 朝鮮總督府, 1935.
- 『青城集』, 韓國文集叢刊 248,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 『太師權公實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古2511-07-33.
- 『退憂堂集』, 韓國文集叢刊 127,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4.
- 『海藏集』, 韓國文集叢刊 續127,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1.

## 2. 연구서

- 강영철·이근택·박남수 편, 『사진·유리필름 화집』,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1.
- 강은경, 『고려시대 기록과 국가운영』, 서울, 혜안, 2007.
- 경상북도 편, 『文化財大觀』 4, 대구, 경상북도, 2003.
- 국사편찬위원회 편, 『사진·유리필름목록』 상,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8.

- 남권희, 『高麗時代 記録文化 研究』,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노명호 외 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 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a.
- \_\_\_\_\_,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 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b.
- 박성호, 『고려말 조선초 왕명문서 연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7.
- 박재우, 『고려 국정운영의 체계와 왕권』, 서울, 신구문화사, 2005.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편, 『第2次3個年計劃 安東文化圈學術調查報告書』, 서울, 안동문화권학술조사단, 1971.
- 심영환, 『고려시대 증서문하 교첩』, 서울, 소와당, 2010.
- 안동민속박물관 학예연구팀 편, 『안동 태사묘』, 안동, 안동민속박물관, 2017.
- 이기백 편, 『第二版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서울, 일지사, 1993(1987년 초판).
- 이은주·조효숙, 『태사묘 소장 유물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 안동,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2001.
- 한국문화재보호협회 편, 『文化財大觀』 7, 서울, 대학당, 1986.
- 허홍식, 『한국의 古文書』, 서울, 민음사, 1988.
- 川西裕也, 『朝鮮中近世の公文書と國家-變革期の任命文書をめぐって-』, 福岡, 九州大學出版會, 2014.
- 矢木毅, 『高麗官僚制度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8.
3. 논문
- 박성호, 「조선 초기 功臣敎書의 文書史的 의의 검토-1392년 李濟 開國功臣敎書와 1401년 馬天牧 佐命功臣敎書-」, 『전북사학』 36, 2010.
- \_\_\_\_\_, 「새로 발견된 고려말 흥패의 고문서학적 고찰과 사료로서의 의의 -1389년(창왕 1) 최광지 흥패-」, 『고문서연구』 48, 2016.
- \_\_\_\_\_, 「고려말 조선초의 교서」, 『고려말 조선초 왕명문서 연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7.
- 박재우, 「王命의 종류와 반포」, 『고려 국정운영의 체계와 왕권』, 서울, 신

- 구문화사, 2005(2003년 초출).
- 박진훈, 「고려 후기 홍건적의 침입과 安祐의 군사활동」, 『사학연구』 130, 2018.
- 배영동, 「공민왕 몽진 관련 유물 유적의 성격과 의미」, 안동대학교 민속학 연구소 편, 『고려 공민왕과 임시수도 안동』, 안동, 안동시, 2004.
- 심영환, 「高麗時代 獎諭敎書 樣式」, 『장서각』 18, 2007.
- 심영환·노인환, 「조선시대 敎書의 淵源과 分類」, 『한문학논집』 34, 2012.
- 심영환·박성호·노인환, 『변화와 정착-麗末鮮初의 朝謝文書-』, 민속원, 2011.
- 원희정·장현주·백영미·최석철·권영숙, 「안동 태사묘소장 고려 후기 직물의 제작특성」, 한국전통복식연구회 편, 『전통복식』 2, 서울, 경춘사, 2000.
- 윤용혁, 「공민왕대 ‘홍건군’의 고려 침입-고려의 홍건군 격파에 대한 재평가와 재인식-」, 『역사와 역사교육』 36, 2018.
- 이은주, 「태사묘 유물을 통해 보는 고려시대의 허리띠」, 안동시·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편, 『고려시대의 안동』, 서울, 예문서원, 2006.
- \_\_\_\_\_, 「우리가 알아야 할 태사묘 보물 이야기」, 안동민속박물관 학예연구팀 편, 『안동 태사묘』, 안동, 안동민속박물관, 2017.
- 이정란, 「1361년 홍건적의 침입과 공민왕의 충청지역 피난정치」, 『지방사와 지방문화』 21-1, 2018.
- 장병인, 「朝鮮初期의 觀察使」, 『한국사론』 4, 1978.
- 정 광, 「몽고어 교육-문학-」, 『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 파주, 김영사, 2014.
- 최연식, 「고려시대 국왕문서의 종류와 기능」, 『국사관논총』 87, 1999.
- 한상준·장동익, 「安東地方에 전래된 高麗 古文書 七例 檢討」, 『경북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과학)』 33, 1982.
- 허홍식, 「安東先生案」, 『대구사학』 19, 1981.
- 川西裕也, 「高麗事元期から朝鮮初期における任命文書體系の再検討」, 『朝鮮中近世の公文書と國家-變革期の任命文書をめぐって-』, 福岡, 九州大學出版會, 2014(2011년 초출).
- \_\_\_\_\_, 「高麗の國家體制と公文書」, 『史苑』 75-2, 2015.

- \_\_\_\_\_, 『高麗忠烈王代發給の‘松廣寺奴婢文書’-パスパ字‘駙馬高麗國王印’の新事例-』, 『朝鮮學報』 245, 2017.
- 森平雅彦, 『駙馬高麗國王の誕生-元における高麗王の地位についての豫備的考察-』, 『モンゴル覇權下の高麗-帝國秩序と王國の對應-』,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3(1998년 초출).
- 矢木毅, 『高麗王言考-または『高麗史』諸志の文獻批判-』, 『高麗官僚制度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8(1994년 초출).

(新瀉大學 現代社會文化研究科 助教/ youkawan@hanmail.net)

주제어: 교서, 공민왕, 태사묘, 팍바자 인, 부마고려국왕인

논문투고: 2019.8.26. 심사완료: 2019.9.25. 게재확정: 2019.10.10.

<Abstract>

## Research on “Jeong Gwangdo Gyoseo(鄭光道教書)”

– A New Case of the Phagspa-Character Seal

“Buma-goryeo-gugwang-in(駙馬高麗國王印)” –

KAWANISHI, Yuya

Issued in 1360, “Jeong Gwangdo Gyoseo” is currently held at Taesa-myoo(太師廟) in Andong(hereinafter the Taesa-myoo-held document will be referred to as the “Hyeonjon Gyose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each have photographic plates of “Jeong Gwangdo Gyoseo” (the photographic plate of document will hereinafter be referred to as “Geonpan Gyoseo”). Although “Hyeonjon Gyoseo” and “Geonpan Gyoseo” reveals important differences. Particularly notable is the phagspa-character seal “Buma-goryeo-gugwang-in(駙馬高麗國王印)” in “Geonpan Gyoseo.” It is very unlikely that the text with the phagspa-character seal was forged at a later point, which strongly indicates that “Geonpan Gyoseo” is the authentic document. Furthermore, as I investigated the provenance of “Jeong Gwangdo Gyoseo,” it became clear that “Geonpan Gyoseo” was continually held at Taesa-myoo at least from the early 17th century until 1935. Various characteristics of “Hyeonjon Gyoseo” strongly indicate that it is a copy of “Geonpan Gyoseo” made in a later period.

Key Words: Gyoseo, Gongmin-wang, Taesa-myoo, phagspa-character seal, Buma-goryeo-gugwang-in